

회복중인 남성알코올중독자의 성교육 요구*

차진경** · 김성재***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알코올중독 평생 유병률은 약 13.4%로, 2012년 통계에 의하면 남성알코올중독자는 약 119만명, 여성알코올중독자는 약 38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1). 알코올중독자를 치료하는 영역에서 당면하는 가장 큰 문제는 재발이다. 실제로 치료받은 알코올중독 환자의 50~60%가 3개월 이내에, 40%~70%가 1년 이내에 재발하며(Swift, 1999), 특히 재발하는 빈도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hon, 2014). 재발은 치료 후 알코올중독자가 다양한 고위험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다시 음주를 하게 되면서 발생하게 된다(Bong & Lee, 2011). 그러므로 회복중인 알코올중독자의 치료효과를 높이고 회복을 돕기 위해서는 재발방지에 초점을 둔 적극적인 중재가 매우 중요하다.

알코올중독의 재발은 단순한 재음주에서 재음주 이

후의 기능장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일정기간 단주를 유지한 후에 다시 이전의 습관적인 음주행동으로 되돌아간 상태를 말한다(Kim, 1996). 재발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요인은 부정적인 정서와 대인관계 갈등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남성의 경우에는 여성보다 부정적인 정서가 상대적으로 높게 재발관련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hon, 2014). 부정적인 정서란 분노, 슬픔, 죄책감, 수치심 등의 피로움과 고통을 느끼게 하는 정서로서, 일상생활 속에서의 다양한 경험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런데 회복중인 남성알코올중독자들의 부정적인 정서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요인은 성적 욕구나 성생활로부터 비롯된다고 보고되고 있다(James, 2012). Cho (2006)의 연구에 따르면 재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배우자의 성관계 거부로 인하여 자존심이 상할 때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며 재발 요인의 하나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또한 음주충동의 외적요인으로 성적으로 즐기거나 쾌락 추구할 때, 부인이 아닌 다른 여성과 만날 경우 거의 음주상황이 초래된다고 하였다(Cho, 2006). O'Farrell (1993)

* 본 연구는 원광보건대학교 2014년 하반기 교내 연구비지원을 받아 진행하였음.

** 원광보건대학교 간호학부 간호학과 교수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교수(교신저자 E-mail: sungjae@snu.ac.kr)

• Received: 23 March 2015 • Revised: 1 April 2015 • Accepted: 12 August 2015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Kim, Sungjae

College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103 Daehak-ro, Jongno-gu, Seoul 110-799, Korea

Tel: 82-2-740-8814 Fax: 82-2-765-4103 E-mail: sungjae@snu.ac.kr

의 연구에서도 역시 알코올중독자가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재발은 '성'과 관련한 것으로, 회복중인 알코올중독자가 결혼생활에 문제가 있으면 재발을 촉진한다고 보았다.

이처럼 James (2012)에 의하면 알코올중독의 재발과 성은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성관련 문제가 부정적인 정서로 발전되지 않도록 돕는 중재가 효과적인 재발방지 전략이 될 수 있다(Cho, 2006). 특히 남성의 경우 성에 대한 생리생식의 일반적인 지식이 월경을 시작하면서 임신이나 분만과 같은 기본적인 성지식을 어머니로부터 얻는 기회가 있는 여성에 비해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Lee, Jeon, Kim, & Jung, 2000), 남성알코올중독자들이 회복기에 경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관련 문제에 초점을 둔 성교육은 재발방지에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재발과 성 문제와의 높은 관련성에도 불구하고, 중독 치료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성교육에 관한 문헌이나 연구는 매우 희박하다.

Lee, Kim과 Lee (2008)가 2000년부터 2007년까지 11개의 국내 간호 관련 학술지에 실린 성 관련 논문 163편을 임상적 영역, 생물학적 영역, 문화적 영역, 인지적 영역, 지식측정과 교육영역 및 복합적 영역으로 분류하였으나 정신건강분야와 관련된 영역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신건강분야에서 수행된 '성'과 관련된 국내 연구는 정신분열병 환자의 성관련 경험과 성태도, 성지식과 관련된 연구(Ko, Park, & Jeong, 2008)로 국한되어 있으며, 알코올중독자의 '성'과 관련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알코올중독자의 재발 방지를 위한 선행연구들도 인지행동모델, 극복기술모델, 회복훈련과 자조모델 그리고 재발예방모델을 통한 예방 전략을 고찰한 연구(Bong & Lee, 2011; Choi, 2013)로 국한되어 있다.

따라서 알코올중독자들을 위한 성교육을 수행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중독자들이 어떤 내용의 성교육 요구가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은 인간의 관점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고 문화적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들의 성관련 경험은 개인적 상황과 한국의 문화적 맥락 속에서의 이해될 필요가 있다(Lee et al., 2008). 이에 본 연구에서는 회복중인 남성 알코올중독자들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토의를 통해 알코올중독자들이 실제적으로 경험한 생생한 성관련 정

보를 수집한 후 이를 분석하여 이들이 필요로 하는 성교육의 내용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는 알코올중독자의 구체적인 요구를 반영한 실질적인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알코올중독자들이 경험하는 '성'과 관련된 교육요구를 파악하고자 포커스그룹 토의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주제내용분석(thematic content analysis) 방법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한 질적 연구이다(Braun & Clarke, 2006; Hsieh & Shannon, 2005).

2. 연구 대상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 선정 기준은 알코올의존으로 진단 받고 치료받은 후에 6개월 이상 단주를 유지하고 있는 자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현재 알코올중독자 전용의 사회복지시설(입소시설, 주거시설, 이용센터, 알코올상담센터)의 서비스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A.A. (Alcoholics Anonymous) 모임에 참여하여 회복 프로그램을 실천하는 자로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남성 알코올중독자 17명이다.

2) 연구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참여자들에 대한 윤리적 고려는 다음과 같다. 일차적으로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개인의 참여의사를 확인하였으며 참여에 관심이 있는 알코올중독자들의 참가 신청서를 받았다. 두 번째 단계로 참가신청을 한 대상자들에게 포커스그룹 토의에 대해 설명한 후 수집한 면담 내용은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익명으로 사용 할 것이며 참여자 개인 신분은 공개하지 않을 것과 연구 참여 중이라도 거부할 의사 있음 설명한 후 연구 참여 동의서를 서면으로 받았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였다. 또한 포커스그룹 토의 내용을 녹음하기 위해 녹음기를 사용할 것이며 이와 병

행하여 토의내용을 메모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다. 그리고 참여자들의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인터뷰를 진행할 때 영어 이름 혹은 별칭을 사용하여 녹음하였고, 음성파일 및 개인정보는 제 1 연구자만이 접근 가능한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였다.

3. 자료 수집

대상자를 3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포커스그룹 토의를 진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0년도 8월부터 2011년도 2월까지였다.

포커스그룹 연구에서 제안하는 질문의 원칙을 준수하여 토의에 사용할 질문을 개발하였다(Kim, Kim, Lee, & Lee, 2000; Kang & Hong, 2014).

성적인 경험이 평상시에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에는 민감한 주제임을 고려하여 워밍업을 위한 도입 질문으로 “성이란 무엇입니까?”를 사용하였다. 전환질문으로는 “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를 사용하였으며, 주요 질문들로는 “성과 관련하여 회복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성과 관련하여 말하기가 가장 어려운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성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과 관련하여 제공되어야 하는 중요한 정보는 무엇입니까?”등을 이용하여 알코올중독의 재발사건과 관련된 자신의 성관련 경험을 수집하였다. “성과 관련하여 추가로 하시고 말씀이 있다면 무엇입니까?”라는 마무리 질문을 통해서 추가적인 성교육 내용을 파악하였다.

원활하고 자유로운 성 경험 토의를 위해 참여자들이 남성인 점을 고려하여 포커스그룹 토의는 훈련받은 3명의 남성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진행하였다. 집단의 동질성 확보를 위해 중간 집, 거주시설, 이용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참여자별로 집단을 구성하여 총 3개의 그룹을 운영하였다. 참여자들이 연구 주제와 관련된 경험을 충분히 나눌 수 있도록 각 그룹에 융통성 있게 시간을 할애하였으며, 자료가 포화될 때까지 그룹토의를 진행하였다. 시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90분마다 휴식시간을 가졌고, 휴식시간에는 포커스그룹 토의를 운영하는 장소의 옆방에 쉴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마련하여 차와 간식을 제공하였으며,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을 포함하여

포커스그룹 토의에 소요된 시간은 약 4-6시간이었다.

한 개의 포커스그룹 토의 직후에 연구자와 토의를 운영한 진행자가 모여 디브리핑 노트를 작성하였고, 질문에 대한 추가 탐색이 더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며 자료가 충분히 포화되었음이 동의되면 다음 포커스그룹 토의를 위한 질문내용을 수정 보완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포커스그룹 토의 필사본과 진행자와 보조진행자가 작성한 현장노트, 디브리핑 노트 등으로 모두 A4용지 160페이지 분량이었다.

4. 자료 분석 방법 및 신뢰도 확보

1) 자료 분석 방법

포커스그룹 토의를 통해 수집한 자료는 주제내용 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제내용 분석은 수집된 자료로부터 서술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개념을 찾아내고 개념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중심 주제를 도출해 내는 방법이다(Braun & Clarke, 2006). 본 연구에서는 Hsieh와 Shannon (2005)가 제안한 대로 의미 있는 단어, 문장, 단락을 일차적으로 개방 코딩한 후 유사한 문장과 단락으로 모아 구분하고, 구분된 문장과 단락을 범주화하여 명명하였다. 주제내용 분석을 위해 연구자와 진행자가 총 10회의 연구회의를 진행하였고, 연구과정에서 자료수집과 자료분석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일지를 작성하여 연구의 일관성과 자료 분석의 중립성을 유지하였다.

2) 신뢰도와 타당도 확보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확보를 위해 Guba와 Lincoln (1989)의 질적 연구의 평가 기준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였다. 사실적 가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자료수집의 전 과정을 녹음하였고 필사본과 녹음내용을 무작위로 선택하여 대조하여 그 일치여부를 확인하였다. 또한 포커스그룹 토의가 종료된 후 토의 내용을 요약하여 참여자들에게 그들이 말한 내용과 다름없는가를 점검하였다. 분석의 결과를 연구에 참여하였던 참여자 3명에게 보이고 그 내용의 의미가 정확함을 확인받았다.

III. 연구 결과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징

본 연구 참여자는 총 17명으로 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은 43.5세이고, 미혼 6명(35.3%), 기혼 5명(29.4%), 이혼 6명(35.3%)이며, 종교 있음 14명(82.4%) 종교 없음 3명(17.6%)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중졸 3명(17.6%), 고졸 6명(35.3%), 대졸 8명(47.1%)이었고, 알코올중독으로 입원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14명(82.4%), 없는 대상자는 3명(17.6%)이었으며, 알코올 중독치료를 입원한 평균 재원기간은 13.4개월이었다(Table 1).

2. 주제내용 분석

분석결과 회복중인 알코올중독자 성교육 요구를 나타내는 주제는 4개의 범주와 10개의 하위 범주로 도출되었다.

첫 번째 범주인 '성지식의 부족'에는 참여자들이 지닌 '성에 대한 단편적이고 부정적인 이해'와 '성교육의 부재'가 하위범주로 포함된다. 범주 2는 '성생활에 미치는 알코올의 영향'으로서 그 하위범주로는 '알코올과 성충동과의 관계', '불만족한 성생활로 인한 부정적인 정서', '성기능의 장애'로 도출되었다. 범주 3은 '성기능 장애

에 대한 대처방법'으로 도출되었고, 하위범주는 '대중적 처치', '문제해결을 위한 건강한 대처', '성적 욕구의 승화'로 도출되었다. 범주 4는 '여성과의 관계와 갈등'으로 도출되었고, 그에 따른 하위범주는 '여성과의 관계', '성문제로 인한 부부갈등'으로 도출되었다(Table 2).

1) 성지식의 부족

범주 1인 '성지식 부족'은 회복중인 알코올중독자들을 위한 성교육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주제이다. 이들이 지녔던 부정적이고 단편적인 성지식과 정확한 지식을 습득할 기회가 없었음을 확인해주는 하위 범주로 '성에 대한 단편적이고 부정적인 이해'와 '성교육의 부재'가 도출되었다.

● 성에 대한 단편적이고 부정적인 이해

'성에 대한 단편적이고 부정적인 이해'는 연구 참여자들의 성에 대한 이해수준을 드러내주는 주제이다. 대다수 참여자들에게 성이란 단지 '쾌락을 추구하거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행위'로서 인식되고 있었다. 한 참여자는 성이 지니는 가치와 의미는 오로지 '결혼을 전제로 배우자를 통해 자식을 낳으려는 종족 보존의 요식 행위'일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다음의 한 참여자의 진술에서 보듯이 성에 대한 단편적인 이해는 성행위를 이성을 착취하는 행위라고 생각하게 만들기도 하였다.

"제가 술 문제가 깊어지기까지는 이성은 나의 욕구충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General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Age	20~39	4(23.5)
	40~59	12(70.6)
	60~	1(5.9)
	Mean	43.5 years
Marriage status	Non-marriage	6(35.3)
	Married	5(29.4)
	Divorced	6(35.3)
Religion	Yes	14(82.4)
	No	3(17.6)
Education	Middle school	3(17.6)
	High school	6(35.3)
	University	8(47.1)
Hospital admission experience	Yes	14(82.4)
	No	3(17.6)
	Admission periods	13.4 month

죽 수단이고, 내가 원하는... 내가 성적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성은 이용하는 도구라 생각했어요. 이성을 그래서 그 당시에는 착취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참여자 14)

● 성교육의 부재

참여자들의 거의 대부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었다고 솔회하였다. 한 참여자는 자신들이 성에 대해 부정확한 지식과 부정적인 견해를 갖게 된 것은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이 개인적으로 터득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정확하고 과학적인 성 지식을 알

기를 원하였다.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한 참여자의 다음 진술은 올바른 성지식이 성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알려주는 좋은 예이다.

“성교육을 아주 리얼하게 받았고 그때 이제 성이란 아름다운 것이구나. 내가 그동안 착각하고 있었구나. 정말 소중한 거고 중요한 거구나. 그리고 또 어떤 죄가 아니구나. 죄악이 아니고...”(참여자 10)

2) 성생활에 미치는 알코올의 영향

두 번째 범주인 ‘성생활에 미치는 알코올의 영향’은 회복중인 알코올중독자들이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성교육 내용에 해당되는 ‘알코올과 성충동과의 관계’, ‘불

Table 2. The Needs of Sex Education for Recovering Male Alcoholics

Category	Sub-category	Key contents
Lack of sexual knowledge	Fragmentary and negative understanding of sex	Pleasure seeking sex Sex for relieving stress Sex for preserving the species Sex for satisfying the partner
	Lack of sex education	Personally learned knowledge of sex Necessity of sex related knowledge
Effects of alcohol on sex life	Relationship between alcohol and sexual impulse	Feel confident only after drinking Sex with prostitute Uncontrolled sexual impulse
	Negative emotions induced unsatisfied sex life	Anger Anxiety Irritation Suicide impulse
	Sexual dysfunction	Impotence Premature ejaculation Loss of sexual desire Drug treatment and sexual disorder
Strategies to cope with sexual dysfunction	Symptomatic treatment	Use erection sustainer Use medication prescribed by the doctor
	Healthy coping for solving problems	Do masturbation Have sauna at a steam room Have many physical activities Study for self development
	Sublimation of sexual impulse	Accept difficulty in sexual impulse Come to have strength to endure sexual impulse
Relationship and Conflict with women	Relationship with women	Sex with an alcoholic woman Sex with a drinking woman Come to understand women
	Marital conflicts due to sexual problem	Influenced by the wife's rebuke The pride is hurt if rejected Lose confidence in sexual intercourse Suspect the wife

만족한 성생활로 인한 부정적인 정서 및 '성기능의 장애'의 주제가 포함된다.

• 알코올과 성충동과의 관계

참여한 알코올중독자들은 술 취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던 과거의 습관으로 인하여, '술을 마셔야만 성관계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생각은 단주한 후의 음주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성관계에 대해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요인이 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단주 후에 상당기간 성욕을 억제하다가 한 순간에 강한 성 충동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이는 음주충동으로 이어져 재발을 초래하게 되는 양상을 보였다. '통제할 수 없는 성충동'을 해결하기 위해 집장촌을 찾아가게 되었던 참여자도 있었고, 술을 마셔야만 성관계에서 자신감이 생기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진술한 참여자도 있었다. 다음 참여자의 진술은 음주와 연결된 과거의 성생활 습관과 단주 후 억압해온 성욕이 강한 성충동을 일으켜서 재발을 일으키는 과정을 잘 드러내주는 예이다.

"성 욕구가 워낙 강하게 올라오니까. 성 충동이 올라와서 재발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맨 정신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술이라도 마시고 건수 만들어... 저 여자랑 하고 싶다. 단순히 그거 하나 때문에 내가 단주 생활하다가 그걸 포기하고 술은 마셨는데..."(참여자 13)

• 불만족한 성생활로 인한 부정적 정서

참여자들은 단주 후의 성생활에 대하여 음주상태에서의 과거 성생활보다 불만족스럽게 느끼고 있었다. 이와 같은 불만족스런 성생활은 부정적인 정서를 느끼게 하였으며, 원활한 성기능을 위해 술 한 잔 하고 와서 성관계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 불만족한 성생활로 인해 경험하는 부정적인 정서는 화, 불안, 수치심 등으로서 참여자들은 자신이 만족하지 못하는 성행위로 인해 화가 많이 나거나, 성 파트너의 부재로 인해 현실적으로 성관계가 제약받는 상황으로 인해 짜증이 나거나, 안전부절해지는 불안감을 경험하였다. 다음의 한 참여자의 진술은 성생활과 부정적 정서와 재발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잘 드러내준다.

"술을 안마시고 정상적으로 여자를 관계를 했을 때,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니까!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수치심, 쪽팔림을 경험하다보니까, 다시 술 생각으로 자동 생각으로 돌아가는 게..."(참여자 13)

• 성기능 장애

회복과정 초기에 있는 참여자 대부분이 발기불능과 조루현상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 참여자는 이와 같은 성기능 장애로 인해 성 욕구가 감소되면서 삶의 의미조차 상실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어떤 참여자는 약물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성기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그렇지 못해서 치료를 중단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은 참여자 대부분이 알코올중독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성기능 장애에 대하여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회복중인 알코올중독자들의 상당수는 알코올중독의 후유증인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있었는데, 복용하는 항우울제의 부작용에 대해 이는 바가 없거나 잘못 알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에 관한 교육이 전무함을 알 수 있었다. 아래의 인용문은 알코올로 인한 성기능 장애와 항우울제의 부작용으로 인한 성기능장애가 재발을 촉발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단주 초기 이삼년은 맑은 정신이 되고 술 안 먹고 성관계를 하니깐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난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가 에이~말아버리는 거죠. 음주 했을 때는 어떤 힘이 발동했는지 몰라도... 2년 정도 우울증 약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더라고요. 이리다가 (다시) 술을 먹으면 안 되는데... 여기에서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참여자 11)

3) 성기능 장애에 대한 대처방법

세 번째 범주인 '성기능 장애에 대한 대처방법'에는 연구 참여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대증적 처치'의 방법들과 '문제해결을 위한 건강한 대처' 방법 및 '성적 욕구의 승화'의 방법이 주제로 도출되었다. 특히 참여자들은 '성기능 장애 대처방법'과 관련하여 높은 성 교육 요구도를 나타냈다.

• 대증적 처치

참여자들은 이 회복과정 중에 성기능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대처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의사의 처방에 의하기 보다는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비 전문적인 정보에 근거한 대중적 처치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호기심으로 일시적으로 시도해보는 정도였다. 참여자는 성기능 장애에 대한 '좀 더 건강한 대처방법'에 대해 알고 싶다고 하였다. 발기부전이나 조루에 대처하기 위한 참여자들의 대중적 처치는 발기 유지제를 구입하거나, 비뇨기과에서 국부 마취제를 처방받는 것이었다. 그러나 참여자들은 대중적인 처치를 '임시적인 방법'이라고 표현하였으며, '(효과는) 괜찮지만, (사용이) 불편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비아그라를 처방받은 한 참여자는 자신의 행동이 떳떳하지 못하다고 하여 죄책감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저도 칩칙이 몇 번 사서 써요. 말 그럼 그려있는 칩칙이... 중략... 뿌리는 거 바르는 거 있고 두 가지 있잖아요. 왜? 혹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혹시 그때 해보고 싶어서, 하고 싶어서..."(참여자 12)

● 문제해결을 위한 건강한 대처

단주기간이 길어지고 회복과정이 진행되면서 참여자들은 성 욕구를 지연시키거나, 성충동이 일어나도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행동으로 실행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성충동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들이 사용하는 대처방법은 매우 다양하였는데, 예를 들어 부끄럽게만 느꼈던 자위행위하기, 야한 동영상 보면서 긴장을 해소하기, 또한 기운이 소진될 때까지 냉·온수 찜질 번갈아 하기, 운동하기, 자기계발을 위한 공부하기 등이 있었다. 한 참여자는 신체적 활동을 통해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표현한다고 하였다. 또 어떤 참여자는 회복 기간이 길어질수록 성 충동은 일시적인 특성임을 알게 되어서, 강렬한 성충동이 잠시 후 가라앉게 될 때까지 기다리는 힘이 생긴다고 진술하였다. 다음의 인용문은 성충동에 건강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잘 드러내준다.

"지금은 성 충동이 올라오면 조금만 그 시기만 넘기면 된다는 걸 아는데요... 어디 창녀촌이나 어디를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은 많이 줄어든 거 같아요. 차라리 자위를 하던지 해요. 옛날에는 즉흥적이었으면 지금은 조금은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좀 떨쳐 버리려고 하고..."(참여자 9)

● 성적 욕구의 승화

한편 참여자들은 단주 이후 현실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성관계와 성적인 욕구는 단지 성행위만으로는 충족되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오히려 그러한 성적 욕구는 자신이 희망했던 삶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꾸준히 새로운 것을 배워가는 기쁨과 자신의 자기실현의 과정으로 승화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다음의 인용문은 성적 쾌락과는 다른 기쁨을 느끼게 된 자기개발 경험을 잘 표현하고 있다.

"저의 정신적인 부분을 충족을 시키는 게, 즉 이게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건지... 그래서 무엇인가 의미 있는 것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만족을 느끼는데서 공부하고, 배우고, 몰랐던 거 알면서... 어떤 그런 만족감이 순간에... 어떤 성적 쾌락에서 순간 폭발보다도 이것이 그 어떤 잔잔한 쾌락의 맛을 보는 느낌이에요. 내가 몰랐던 것을 이제 알아가는 구나 그러면서 어떤 희열이 지금의 어떤 걸 뒷받침해주고 있는 거 같아요."(참여자 3)

4) 여성과의 관계와 갈등

네 번째 범주인 '여성과의 관계와 갈등'에는 '여성과의 관계'와 '성문제로 인한 부부갈등'의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분석결과 '여성과의 관계'가 재발을 촉발할 수 있는 요인임을 확인하였으며, 다양한 '성문제로 인한 부부 갈등'도 재발을 일으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성과 관련된 '여성과의 관계와 갈등'에 대한 교육이 전혀 제공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여성과의 관계

결혼상태가 아닌 회복중인 알코올중독자들이 성적 파트너로 만날 수 있는 여성은 단주하고 있는 여성알코올중독자이거나, 음주하는 여성들이었다. 참여자들은 여성 알코올중독자들을 이성 상대로 만나게 되었을 때는 남녀가 모두 정서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성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는 재발촉발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성적 파트너로 새롭게 만나는 여성이 음주하는 상황은 자신에게는 재발의 고위험상황이 될 수 있음을 진술하였다. 참여자들은 회복중인 남성알코올중독자가 안전한 성생활과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새로운 여성과의 만남에 신중함해야 함을 강조하였

다. 다음 인용문은 성적 파트너가 음주하는 상황에 함께 있는 것은 재발가능성을 높이는 촉발요인이 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내가 술 문제가 있는 거는 그 분이 알고 있는데 내 앞에서 (그 여자가) 소주를 한 병 마시고 술에 가버린 거죠... 중략... 그런 상황에 제가 막 다치니까 불편해져요. 그 상황이 자주 반복되거나 심해지면 내가 술을 먹을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참여자 5)

한편 알코올중독에서 회복되어감에 따라 점차적으로 성적 파트너로서의 여성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게 됨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다음의 예는 회복되어감에 따라 여성에 대한 이해의 자세가 변화됨을 알 수 있는 예이다.

“내가 맑은 정신이 되니까 2년째는 몰랐고 3년째는 남자인 나는 성욕구가 있을 때 자위행위나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는데... 중략... 집 사람도 똑같은 사람일 텐데 어떻게 (성욕을) 푸는가 방식들도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참여자 11)

● 성문제로 인한 부부갈등

결혼생활이 유지되고 있는 참여자들의 경우에는 부인과의 성생활 문제에 대한 전문적 도움이 필요함을 피력하였다. 참여자들은 부인이 발기부전이나 조루와 같은 성기능 장애에 대해 지적하거나 성관계를 거부할 때에는 자존심이 손상되어 술을 마시고 싶은 충동이 든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부부생활에서 부인을 만족시키지 못했다고 느끼게 되는 경우에는 자신감이 없어지고 불안해지면서 부인에 대한 의심이 생긴다고 하였다. 분석 결과 이러한 성문제는 부부갈등으로 이어지고 음주 충동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의 인용문에서는 성문제가 부부갈등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잘 드러난다.

“부인에게 성에 대해 제대로 충족 못시켜줄 때, 그런 거 때문에 관계가 깨질 수 있겠다는 불안감도 갖고 있어요. 제대로 안 해주면 부인이 다른 남자를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불안감이 늘 갖고 있는 거죠.”(참여자 13)

IV. 논 의

본 연구의 결과로 도출된 4개의 범주는 회복중인 알코올중독자들이 필요로 하는 성교육의 요구임과 동시에 이들을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에 포함해야 할 4가지의 주제가 될 것이다.

범주 1인 ‘성 지식의 부족’에서는 회복중인 알코올중독자들을 위해 정확한 성지식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위범주 ‘성에 대한 단편적이고 부정적인 이해’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은 ‘성’을 단순한 욕구충족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Chae (2009)의 주장과 같이 성을 단순하게 성기관이나 성행위에 연관시켜 인식해왔기 때문이라고 본다. 또한 본 연구 참여자들이 지닌 성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인식은 전통적인 가족주의 입장에서 단지 자녀 출산의 수단으로 성을 이해하고 있는 우리나라 남성의 전통적인 성 관념(Kim, 2005)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참여자들의 성 지식의 부족은 이들의 20-30대 시절인 1960-70년대 한국 사회의 성문화에 근거한다. 성을 주제를 공개적으로 강의하거나 논하는 것이 금기시되었고(Chae, 2009), 게다가 우리나라 성교육의 대부분은 성기의 구조와 성행위에 대한 생물학적 영역의 내용들로만 국한되었기 때문이다(Sok, 2003).

하위범주 ‘성교육의 부재’에서는 이들이 성교육 기회가 부재했음을 알 수 있었고, 더불어 성교육을 통해 성 지식과 이해가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한편 이러한 ‘성에 대한 단편적이고 부정적인 이해’는 부정적인 정서인 죄책감과 연결되어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즉 여성을 자신의 욕구를 위한 착취적인 수단으로 삼았다는 생각과 성적 욕구 자체를 죄악으로 여기는 인식은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시키고 이는 음주를 촉발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부정적인 정서가 알코올중독의 핵심적인 재발요인이므로 성교육을 통해 성에 대한 건강한 인식을 갖도록 돕는 것이 재발방지에 효과적인 중재가 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범주 2인 ‘성생활에 미치는 알코올의 영향’에서는 참여자들의 성생활과 음주가 얼마나 밀접한 연관성을 보여준다. 하위범주인 ‘알코올과 성충동과의 관계’의 주제에서는 알코올중독자들이 성충동과 음주충동을 동시에 경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음주가 성적인

능력과 성욕구의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기대감이 있다는 Hong (1990)의 연구 결과와 동일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취한 상태에서의 성충동 경험은 오랜 기간 동안 학습된 인지적 관점이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 회복과정에서는 이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하위범주인 '불만족한 성생활로 인한 부정적인 정서'에서는 부정적인 정서를 야기하는 원인에 따라 그 정서의 유형이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범주 1인 '성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경험하는 부정적 정서는 죄책감과 자책감인데 비해, '불만족한 성생활로 인한 부정적인 정서'는 화, 불안, 수치심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에게서의 성은 남성다움을 형성하고 남성으로 인정받는 것(Park, 2009)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만족하지 못한 성행위로 인해 수치심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정적 정서에 따라 초점을 달리한 성교육을 제공한다면 재발방지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성과 관련된 죄책감이나 자책감을 느끼는 대상자에게는 과학적인 성지식을 중심으로 한 성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성과 관련되어 화와 불안 및 수치심을 호소하는 대상자를 위해서는 성기능 장애에 대한 이해 및 치료방법에 대한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하위범주인 '성기능 장애'를 통해서 회복중인 알코올 중독자들이 겪는 성기능 장애가 강력한 재발촉발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회복 초기에 이들이 경험하게 되는 성기능 장애의 경험이 매우 당황스럽고, 차라리 음주를 하는 편이 낫겠다는 판단이 음주충동으로 이어지는 경험을 보고하였는바, 이는 장기적인 알코올 섭취가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쳐 남성호르몬의 변화와 함께 성기능 감퇴가 오게 된다는 지식(St. John of God Alcohol Counseling Center, 1993)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또한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참여자들은 성기능장애가 항우울제의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있는 알코올중독자들에게 항우울제가 발기불능이나 사정 지연 등의 성기능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Cho, 2003; Park, Kim, & Lee, 2010)는 내용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약물 부작용에 따른 성기능의 장애 발생과 관련된 지식의 부재는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성공적인 우울증 치료

에 장애가 되기도 한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발기부전이 있을 경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생겨 자긍심, 부부관계, 가족 및 친구 간의 상호작용은 물론 심지어는 신체적인 건강까지 해치게 되기 때문이다(Michael, Gagnon, Laumann, & Kalata, 1994; Hong, 2003). 이러한 부정적인 결과들은 재발 촉진 요인이 되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 드러난 알코올중독 회복 초기에 성생활에 미치는 알코올의 영향에 따른 구체적이고 정확한 성교육은 회복을 유지 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범주 3 '성기능 장애에 대한 대처방법'에서 파악한 참여자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방법들은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에 현 실정을 토대로 한 성교육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위범주 '대중적 처치'에서 드러난 방법들에 대해서 참여자들은 스스로 불편하게 느끼고 있었다. 이처럼 성교육이나 성 정보가 없었던 시대에 살아 온 청장년층인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자위행위조차도 수치심이나 죄책감으로 느끼고 있었다. 이들에게 남성의 경우 자위행위를 하는 경우가 거의 100%이라는 연구(Giddens, 1992) 결과를 성교육시에 제공한다면 알코올중독자들의 성 관련된 부정적 정서가 감소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성기능 장애에 대한 대처방법'에 속하는 하위범주인 '문제해결을 위한 건강한 대처'와 '성적 욕구의 승화'에서 확인한 구체적인 전략들은 실제에 근거를 둔 성공적인 방법들이기 때문에 알코올중독자를 위한 실질적인 성교육 내용으로 활용가치가 높다고 본다. 특히 신체적 운동을 통해 성충동을 해소한 경험, 성적 쾌락과는 다른 자기 계발에서의 기쁨에 대한 경험 및 성적 충동의 파도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면서 충동 조절력을 갖게 된 경험 등이 그 좋은 예라고 본다. 이러한 성충동을 이겨내는 건강한 대처를 알려주는 성교육은 단주 초기의 알코올중독자들을 위한 재발방지에 특히 효과적일 것이다.

범주 4 '여성과의 관계와 갈등' 범주에서는 회복중인 알코올중독자의 성생활을 위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성적 파트너가 없는 참여자들은 새롭게 여성을 만나는 과정에 재발의 위험이 있었으며, 결혼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참여자들은 부인과의 성생활 갈등이 재발 촉진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알코올중독자인 경우 알코올이 제거되면 인간관계나 의

사소통 등 인간관계의 영역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 Birchler (1995)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생각해볼 때, 중독과 관련된 부정적 양상은 인간관계 전반에 걸쳐 나타나지만, 특히 친밀한 관계에 토대를 둔 성적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더욱 극명하게 노출된다고 본다. 이는 회복기간이 길어질수록 여성과의 관계가 진솔한 소통의 관계로 변화되고, 성기능 장애에 대해 성 파트너와 솔직하게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한 한 참여자의 진술에서도 엿볼 수 있다. 그러므로 회복중인 알코올중독자들을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성생활에 대해 성적 파트너와 관계와 소통에 대한 내용이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더불어 알코올중독영역의 전문가들이 성교육은 인간교육이며 훌륭한 남남관계를 바탕으로 한 상호 간에 평등과 협력, 존중과 신뢰로 인간으로서의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 것에 목적이 있음(Kim, Lee, Kim, & Kang, 2012)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회복중인 남성 알코올중독자들의 생생한 성 관련 경험을 통해서 이들에게 요구되는 성교육 요구를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연구결과는 중독분야전문가가 중독자들의 성관련 어려움을 이해하고 성과 관련된 문제를 중재할 수 있는 중독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알코올중독자들의 성 문제를 도울 수 있기 위해서는 중독영역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은 성에 대한 자신의 선입견을 점검하고, 성과 관련된 다각적인 이해를 갖추어 중독자들의 성문제에 개입하는 성관련 전문성 확보를 위한 준비가 되어야 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회복중인 17명의 남성 알코올중독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성관련 경험을 통해 이들에게 요구되는 성교육 요구를 파악하였다. 2010년도 8월부터 2011년도 2월까지 포커스그룹 토의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질적 주제 분석으로 자료를 분석한 결과 4개의 범주와 그에 따른 10개의 하위범주로 도출되었다. 범주 1 '성지식의 부족'에는 '성에 대한 단편적이고 부정적인 이해'와 '성교육의 부재'가 하위범주로 포함된다. 범주 2는 '성생활에 미치는 알코올의 영향'으로서 그 하위범

주로는 '알코올과 성충동과의 관계', '불만족한 성생활로 인한 부정적인 정서', '성기능의 장애'로 도출되었다. 범주 3 '성기능 장애에 대한 대처방법'은 '대증적 처치', '문제해결을 위한 건강한 대처', '성적 욕구의 승화'가 하위범주로 도출되었다. 범주 4는 '여성과의 관계와 갈등'로서 이에 속하는 하위범주는 '여성과의 관계', '성문제에 관한 부부갈등'이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남성 알코올중독자들이 회복과정에서 성교육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회복과정 중 성과 관련된 다양한 상황에서 부정적인 대처를 하게 되었을 때 재발을 일으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 결과로 제시된 4개의 범주와 10개의 하위범주는 알코올중독자들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성교육 내용으로서, 향후 개발할 성교육 프로그램에 필요한 내용을 구성하는데 유용한 근거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맞춤형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한다면, 이는 알코올중독자들의 회복을 돕고 재발을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인 것이라고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상황이 어떻게 재발을 일으키는지를 설명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결과와 논의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 본 연구결과 도출된 4개의 성교육 영역 즉, 일반적인 성 지식, 성생활에 미치는 알코올의 영향, 성기능장애에 대한 대처, 파트너와의 관계를 다루는 알코올중독자를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 연구를 제안한다.
- 개의 영역을 조사할 수 있는 설문지를 개발하여 알코올중독자와 중독전문가를 대상으로 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조사연구를 제안한다.
- 알코올중독자들이 경험하는 성기능 장애와 이에 대한 대처가 재발 및 회복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 성(Sexuality)은 성별(Gender)에 따라 차이가 클 것이므로, 여성 알코올중독자를 대상으로 한 동일한 주제의 연구를 제안한다.

References

- Birchler, G. R. (1995). *Clinical themes encountered with substance-abusing couples*. In G. R. Birchler (Chair), *Therapy with drug-abusing couples*. Symposium Conduc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New York, New York.
- Braum, V. & Clarke, V. (2006). Using thematic analysis in psychology.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3*, 77-101. <http://dx.doi.org/10.1191/1478088706qp063oa>
- Bong, E. J. & Lee, J. S. (2011). Effects of women focused relapse prevention program on abstinence self-efficacy and depression in alcoholic women. *Journal of Korean Academy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20*(1), 13-24. <http://dx.doi.org/10.12934/jkpmhn.2011.20.1.13>
- Chae, K. M. (2009). *Psychology of human sexual behavior*. Seoul: Hakjisa.
- Cho, S. I. (2003). *A study of sexual dysfunction by antidepressant trea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 Cho, G. H. (2006).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relapse among alcoholics*. Unpublished master's thesis. Baekseok University, Cheonan.
- Choi, S. S. (2013). A study on relapse prevention strategies of alcoholics in Korean society. *Journal of Korean Studies Institute, 48*, 307-348. <http://dx.doi.org/10.15299/jk.2013.08.48.307>
- Giddens, A. (1992). *Transformation of intimacy: Sexuality, love and eroticism in modern societies*.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Guba, E. G. & Lincoln, Y. S. (1989). *Fourth generation evaluation*. Newbury Park, CA: Sage.
- Hong, S. M. (2003). *Beautiful love and sex*. Seoul: Hakjisa.
- Hong, J. P. (1990). The effects of alcohol-related expectancies on drinking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Graduate School Student Association, 17*, 187-411.
- Hsieh, H. F. & Shannon, S. E. (2005). Three approaches to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Qualitative Health Research, 15*, 1277-1288. <http://dx.doi.org/10.1177/1049732305276687>
- James, R. L. (2012). *Sexuality and addiction: Making connections, enhancing recovery*. California: ABC-CLIO, LLC.
- Kang, Y. S. & Hong, E. Y. (2014). A study on health education needs of the multicultural family as perceived by visiting nurse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8*(3), 445-459. <http://dx.doi.org/10.5932/jkphn.2014.28.3.445>
- Kim, S. J., Kim, H. J., Lee, K. J., & Lee, S. O. (2000). *Focus group research method*. Seoul: Hyunmoonsa.
- Kim, Y. J. (2005). Perception of elderly sexuality and the sexual life of those who have spouse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1*(5), 134-143.
- Kim, S. J., Lee, J. E., Kim, S. H., & Kang, K. A. (2012). The effect of sexual education on sex knowledge and attitude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6*(3), 389-403. <http://dx.doi.org/10.5932/jkphn.2012.26.3.389>
- Kim, S. (1996). *Modeling Relapse of Alcoholism*. Seoul National Univers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Ko, K. H., Park, J. W., & Jeong, C. J. (2008). A study on sexual experience, sex attitudes,

- and sex knowledge in persons with schizophreni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7(3), 255-264.
- Lee, K. H., Kim, S. H., & Lee, S. H. (2008). Trends in nursing research in sexuality in Korea.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4(2), 83-92.
- Lee, I. S., Jeon, M. Y., Kim, Y. H., & Jung, M. S. (2000). Knowledge in sex and needs of education among community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14(2), 382-395.
- Michael, R. T., Gagnon, J. H., Laumann, E. O., & Kolata, G. (1994). *Sex in America*. London: Little, Brown Company.
-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1). *Mental illness status epidemiological study*. Seoul: Author.
- O'Farrell, T. J. (1993). *Treating alcohol problems: marital and family interventions*. Guilford substance abuse series. New York: Guilford Press.
- Park, S. S. (2009). A qualitative study on the formative processes of premarital adult sexuality.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7(5), 147-166.
- Park, Y. H., Kim, H. S., & Lee, H. G. (2010). *Guidelines revision psychotropic drugs*. Seoul: Jungdammedia-Hakjisa.
- Shon, D. G. (2014).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actors and frequency of alcoholism relapse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gender. *Mental Health and Social Work*, 42(1), 61-90.
- Sok, T. J. (2003). The limits and tasks ahead of gender education in Korea.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14(2), 381-399.
- St. John of God Alcohol Counseling Center. (1993). *Road to recovery*. Seoul: Hanamedical Publishing Company.
- Swift, R. M. (1999). Drug therapy for alcohol dependence. *Neurological England Journal of Medicine*, 340(19), 1482-1490.

The Needs of Sex Education for Recovering Male Alcoholics^{*}

Cha, Jinyung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Kim, Sungjae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The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identify the needs of sex education for recovering male alcoholics.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17 male alcoholic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focus group interviews from August 2010 to February 2011, and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matic content analysis. **Result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were 4 categories and 10 sub-categories. The 4 categories were 'Lack of sex knowledge', 'Effects of alcohol on sex life', 'Strategies to cope with sexual dysfunction', and 'Relationship and conflict with women'. **Conclus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described that education for sex knowledge and safe sex life is necessary for preventing the relapse of alcoholism and supporting recovery of male alcoholics.

Key words : Alcoholics, Sex education, Sexuality, Recovery, Qualitative research

** This present research was supported by 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Research Fund, 2014.*